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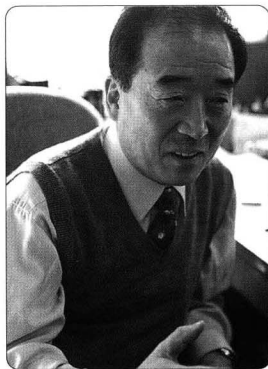
휴간 7개월여 만에 복간되는 <출판저널>은 열린 자세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출판문화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에 그 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소개한다.

## <출판저널>은 우리 문화계의 자산,

## 새 지평 열기를

살림판에서 관찰자로, <출판저널>의 산 증인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정수 부장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전 한국출판금고)의 이정수 부장은 <출판저널>의 속간 작업을 누구보다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15년 전 <출판저널>이 창간될 당시 취재진, 사무실 구성 등 실무행정을 도맡아 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의 발행권을 이양한 재단 소속이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출판저널>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출판저널>이 창간될 무렵의 분위기를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형태로 출발한 게 1969년입니다. 나중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어떤 입김도 받지 않는 고급 서평지가 필요하다는 문화계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출판저널>의 창간을 결정했죠. 당시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정진숙 이사장(을유문화사 대표)과 이기웅 회장(열화당 대표) 등 여러 문화계 인사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죠.”

우리 문화계의 지적 자산으로 평가되는 <출판저널>이 첫 선을 보인 것은 1987년 7월 20일. 격주간지였다.

이 부장은 <출판저널>의 창간 정신을 살리기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우체국으로, 한국통신으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독자들이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편집부에 배정한 것도 <출판저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 편집권 독립에 대한 의혹을 불신하기 위해 <출판저널> 사무실도 재단 사무실과 분리된 곳을 얻었다. 창간호를 낸 산실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3층 세미나실. 출협 건물 안에 사무실을 둔 것은 남분용 신간이 정기적으로 들어와 취재 자료용 책을 구하기 쉬웠던 데다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판저널>이 출협으로 발행권이 이관됐다고 해서 공공성 유지를 걱정하는 분이 많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판저널> 창간 때도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결국 극복했거든

요. 그때 인사나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철저히 독립시키려 애썼듯이 출협도 그런 정신으로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당시 우리 법인 이름이 한국출판금고였는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판권에 발행처 명칭을 아주 작게 넣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 부장은 <출판저널>이 서평문화를 격상시키고, 책과 독자를 잇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적자를 각오하고 시작한 사업이었다’고 전문 서평지의 자립기만이 탄실하지 못한 우리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15년 동안 지켜본 취재팀의 열기는 그를 뿌듯하게 했다.

“기사화를 결정하기까지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내부회의를 통해 한 번 거르고 난 후 편집위원회를 또 거치는 등 몇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쳤지요. 그리고 전문필자들 역시 적은 원고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고.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에 기사화된 책과 저자들은 우리 문화계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부장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일한 지 올해가 꼭 30년째. 1974년부터 출판계의 변화를 지켜보아온 그로서는 <출판저널>이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문화 정론지의 한 양태로 하루빨리 착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출가한 지식처럼 앞으로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전체 출판계를 아우르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출판저널>이 됐으면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양서와 그 저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장은, 발행권이 이양되기는 했지만 재단 사무실과 <출판저널> 취재팀 사무실이 나란히 있어 책에 대한 열정 체감지수는 똑같다며 327호가 출판문화 정론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경희기자